

‘5060’ 중장년은 서럽다

인구 비중 33% 가장 높지만
청년·노인 대책에 밀려
정부와 지자체 지원정책 소외
중장년 일자리 사업 참여 저조
자영업자 지원에도 무관심



봄이 오는 길목 절기상 우수이자 휴일인 19일, 담양 죽녹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대나무 길을 거닐고 있다. /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자치단체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 젊은 인구 유입에만 몰두하면서 중장년에게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금,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장년은 이러한 혜택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자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시·군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장년층들을 위해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조차 미납하고 있다.

◇3명 중 1명이 중장년인데... 관심 없나=19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모두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맞춤형 사업을 설계해 신청하면 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정부가 5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도(15%)와 시·군(35%)이 나머지를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중이지만 전남지역 시·군 자치단체들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지난 5년간 참여 시·군이 7개(2019년)→10개(2020년)→12개(2021년)→11개(2022년) 수준에 그쳤다.

올해도 전남에서는 13개 자치단체가 신청했을 뿐이고 장성을 제외한 목포·여수·광양·담양·곡성·구례·보성·장흥·해남·영암·무안·함평 등 12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전남의 고령화율이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50~69세 중장년층이 60만6422명(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181만 6707명)의 33.3%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일선 시·군의 사업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지적이다.

50~69세 중장년이 3만5163명(30.1%)인 나주는 2019년부터 단 한 차례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체 인구의 37.1%인 2만2953명이 중장년인 고령도 5년 간 사업 참여 실적이 전무했다. 33.4%(1만7410명)가 50~69세인 영광군도 5년 간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았다. 윤명희(더민주·장흥 2) 전남도의회 의원이 최근 열린 제 368회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전남 22개 시·군이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년 자영업자 지원 전남보증재단 출연금도 안 내=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일부 시·군들의 무관심도 문제이다.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 자금 유통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 복리 증진을 돕는 게 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70% 이상이 40~60대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전남 자영업자 비중은 지역 취업자의 40.4%(지난해 3분기 기준)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반면, 연 매출은 5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율이 30%에 이른다.

특히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가(664점 이하) 낮은데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일컫는 취약차주 중에서도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7.0%, 전남 31.7%(지난해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 속에서 전남 자영업자들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전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 증가율도 14.5%(2021년)에서 17.9%(2022년 6월 말 기준)로 3.4%포인트 늘었다. 이 시기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2금융권 대출 비중(35.7%)은 전국 평균(18.25)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런데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제 때 지급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이같은 사업을 위해 5년(2018~2022년)간 300억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목표(미납출연금 14억2500만원)·여수(" 15억 1500만원)·순천(" 20억)·광양(" 5억7800만원)·나주(" 2억7400만원) 등 5개 시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병용(더민주·여수 5) 전남도의회도 "목포·여수·순천·나주 등 재정상황이 그나마 나은 지자체가 출연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미연합훈련, B-1B 폭격기 등 10여대 떴다

북한 ICBM 맞대응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10여 대가 훈련에 참가했으며,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하면서 남부 지방을 통과했다고 알려졌다.

합참은 "이번 훈련으로 미 확장억제 전력의 적시적이고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미국의 철룡같은 한반도 방어 및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훈련은 전남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1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독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경력기자 0명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2월 28일(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3월 2일(목) 개별통보
심층면접	3월 8일(수)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3월 9일(목)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내용	비고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면허증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장양식 다운로드 A4 용지 1장 이내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소지자에 한함
경력기자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개인정보 비밀 보장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해수부, 전남도·부산시·경남도와 해양관광 활성화 협약

섬·갯벌·해안 등 전남지역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포함한 남해안권을 지중해와 멕시코 칸쿤에 버금가는 세계적 해양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일 통영시에서 '해수부-남해안권(부산·전남·경남) 정책협의회'를 열고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원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전남도를 비롯한 각 기관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전남도 등 3개 지역과 공동으로 올해 안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남해안을 시작으로 동해안,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도 부산시와 경남도와 함께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남도 등은 아름다운 섬, 갯벌 등 천혜의 자연유산, 독특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세계인이 찾는 휴양 벨트로 만들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 국가 주도의 광역관광권 개발을 위한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 등에 협력키로 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월단체·특전사동우회 '반쪽 화해' 안된다 ▶6면

소크라테스 "올해 목표는 KIA 우승" ▶18면

세계 문화도시를 가다- 덴마크 코펜하겐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